

리 루의 존 제이 어워드 디너 연설문 전문 - 2012 년 3 월 7 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컬럼비아, 이 엄청난 영광을 주셔서! 제 컬럼비아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몇 분 와 계십니다; 루스 레벤슨, 조나단 쿨, 잭 그린버그, 랜스 리브만, 마이어 펠드버그, 캐서린 야트라키스, 그리고 많은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20 년 전 오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이 자리에 있으니, 정말 과거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제 좋은 친구 메리 데일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제가 23 년 전 처음으로 친구가 된 미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텐안먼 광장에서 막 탈출했을 때, 모두가 제게 "중국의 민주주의 전망은 어떤가"와 같은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메리는 모두가 조용해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머물 곳은 있나요? 갈아입을 다른 옷은 있고요?" 물론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첫 6 개월 동안 저는 말 그대로 메리의 거실에서 지냈고, 그녀는 다른 12 명의 사람들과 공동 거실이 있는 타운하우스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으로 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흰 티셔츠를 입고 앉아서 기다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방으로 갔을 때, 저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드는 대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22 년이 흘렀습니다. 그 흰 티셔츠는 검은색 타이까지 갖춘 흰색 텍시도 셔츠로 변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만약 세 가지 이유를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컬럼비아, 컬럼비아, 컬럼비아일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집을 찾은 곳은 컬럼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핵심 교과과정(core curriculum) 덕분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핵심 교과과정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서구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로드맵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명을 정의하는 백여 권의

위대한 고전들을 읽은 후 처음으로,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도가 왜 그렇게 구축되었는지, 이곳의 일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낯선 곳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또한 발견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공통점입니다. 양국 모두 지리로 정의되는 국민 국가(nation states) 대신, 스스로를 문명 국가(civilization states)로 정의합니다.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일련의 사상과 이상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중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핵심 교과과정을 거친 후에야 저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많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이라는 것을, 다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왔을 뿐이라는 것ですよ. 갑자기, 저는 서류에 정확히 그렇게 분류되었던 "무국적 외계인(Stateless Alien)"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변모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소속감과 제가 이곳에서 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짐이 컬럼비아 칼리지가 핵심 교과과정을 영구적으로 기증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뻐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컬럼비아 학생들은 우리 모두가 교육의 핵심이라고 믿는 것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백여 권의 위대한 고전들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받는 것을, 저는 그들을 교육받았다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앤디 바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저는 제 일곱 살 딸 프란체스카와 아홉 살 딸 줄리아를 여기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밤, 최고의 도시(the best city)에 있는 최고의 대학(the best university)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절대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도 우리처럼 핵심 교과과정을 통해 그것을 겪고 이해한 모든 사람들만큼 잘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 그들의 엄마도 여기 와 있습니다. 전 부인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여기까지 날아오게 해서 시상식 만찬에 참석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제가 모든 것을 망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컬럼비아! 핵심 교과과정 만세! 컬럼비아  
칼리지 만세!